| 현불 논단 |

잘못된 덕담 문화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상대방 언어습관 관찰 버릇 있어
그럴 듯이 거짓말하는 사람 비판
'윤리학자'로써 일종의 직업병일까

불망어계 따르면 구업 4가지 분류
'욕 · 거짓말 · 이간질 · 아첨' 해당

불교계 덕담, 구업들로 점철 많아
대화가 선문답처럼 들려서는 곤란
우리의 언어습관 다시 생각해보길

누구에게나 나름의 편견과 선입견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유독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상대방의 언어습관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읽은 책이 대부분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 혹은 '좋고 나쁨'의 가치 기준을 다루는 내용이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아무데서나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도덕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다. 윤리학은 모든 사람에게 불보살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인간적 삶을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주변에서 그럴듯한 말의 형식을 빌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고 당연한 결과지만 그들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마도 그러는 '너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못마땅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비판의 대상은 동료와 선후배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나의 입바른 소리는 윤리적인 직업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불망어계'의 가르침에 따르면 입으로 짓는 악업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우선 남에게 사나운 말(惡口)을 해서는 안 된다. 육두문자를 오남용하면 곤란하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슴에도 깊은 회한을 남긴다. 마찬가지로 거짓말(妄語)은 아예 처음부터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은 인간관계의 기본전제가 되는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이간질을 불러올 수 있는 말은 특별히 삼가라고 하셨다. 화합중을 깨뜨리는 불화의 원인을 경계하신 것이다. 양설(兩舌)의 금지가 나온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의도를 가지고 듣기 좋은 말로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꾸밈말이 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습관처럼 기어(綺語)를 남발하는 불자들은 이제 제발 자신의 구업짓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그런데 문제는 불교계에서 흔히 주고받는 덕담(德談)이라는 말이 사실은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 입으로 짓는 잘못을 아주 교묘하게 배합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덕담이라는 이름으로 건네는 말이 도반이나 신자로 하여금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덕담이 아니라 악구고 망어며 양설이고 기어에 지나지 않는다.

덕담은 그 취지대로 연초에 한 해 동안의 건승을 기원하는 인사말로써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우리 불교계의 언어문화는 솔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타락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질이 낮은 수준이다. 일상의 대화가 잔뜩 멋을 부린 무슨 선문답처럼 들려서는 곤란하다.

독일의 윤리철학자인 칸트는 우리에게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할 때조차도 우리는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그쳤다. 어떠한 외부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리켜 칸트는 선의지(善意志)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선사했다.

덕담문화의 만연이 역설적으로 칸트의 선의지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은 불망어계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의 언어습관을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싶다.



마음산책

냉소 아닌 '열린 가슴'을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

"아빠는 항상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다.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말할 줄이야. 김 씨는 무슨 일이든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법이 없었다. 뭔가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서 비판하곤 했다.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가는 인생에서, 그러고 보니 항상 뭔가 꼬였다. 잘 되려고 하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곤 했다. 특히 인간관계를 보면 여러 번 옮긴 직장에서 편안한 상사나 동료가 없었다. 꼭 누군가는 김 씨를 힘들게 했다. 이번에도 꼭 승진할 줄 알았는데 탈락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상사들을 욕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던 아들이 소리를 지른 것이다.

분노가 가시지 않아 친구의 권유로 명상을 배우게 되었다. 불교의 인과법도 배웠다.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항상 비판적이니 바로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명상을 하며 그 비판적인 마음을 들어다 보려고 했다. 힘들어도 꾸준히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뜻밖에도 거기엔 아픔이 있었다. 자존심이 상해 인정하기가 싫었지만, '나는 부족해'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다. 어릴 때부터 형보다 못하고, 뜻대로 성적도 안 나오고, 집도 잘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 싫었다.

이내 '나도 못하는데, 잘 될 리가 없겠지. 남이라고 다를 리가 있겠나' 하는 차가운 마음이 생겼다. 김 씨는 자기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자체가 힘들었다고 한다. 막상 자기 마음을 만나고 보니,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조심하게 되었다. 비판이 나오려고 하면, 내면의 마음에 내려놓으려 하고 있다. "꼬이는 인생을 바로 펴고 싶어요. 이제는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보고 싶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오토 샤머 교수는 "내면으로 들어가려면 '열린 가슴'이 필요하다"며 '열린 가슴'을 방해하는 요소로 '냉소의 목소리'를 들었다. 냉소는 '잘 될 리가 있겠어. 변할 리가 없다'라는 차가운 마음이다. 찬물을 끼얹는 마음이며 자신은 물론, 남들의 열정과 노력을 얼어붙게 만든다. 냉소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기제라고도 볼 수 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인간의 의식차원을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도 용기가 없는 것이다. 습관이란 그렇게 무섭다. 안전지대(comfort zone)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 한걸음 떼기가 너무나 무겁다. 마음을 있는 대로 직면하기가 두려운 것이다. 자기의 아픔 속에서 굳어져, 그것을 넘어설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흐르고 있을 뿐, 습관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업은 본래 공해서 붙을 게 없으니, 일체는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에 달려있다"고 한 법문이 떠오른다. 힘들다고 생각될 때, 그 마음을 내면에 내려놓으면 된다. 놓는 순간, 내가 아니라 내면의 보살의 마음과 통한다.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놓아가는 것이 아상을 녹이는 길이고, 정진하는 길이다.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가. 무엇을 놓아버리는 용기가 필요한가.

社 說

새로운 대학 신행프로그램 필요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2개월간 진행한 불교동아리 회원 설문조사 결과가 놀랍다. 흔히 불교동아리 하면 대학생 불자들이 활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중 절반 가량이 무종교임이 드러난 것이다.

약 40%가 무종교에 불교동아리 활동을 하며 불교신자가 됐다는 이들이 전체의 20%에 달하니 사실상 60%가량이 불자가 아닌 상태에서 동아리에 가입하는 셈이다.

현재 불자가 아닌 동아리 회원 중 60%가 역시 불교로 개종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대학포교에서 불교동아리가 얼마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불교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동아리 회원들이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으로는 신행프로그램과 문화활동 개발이 첫 순위로 꼽혔다.

대학생들의 부족한 시간에 맞는 신행문화가 새롭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서관, 카페 등에서 공부하며 틈틈이 불교명상을 하며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등의 새로운 불교신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교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도 꼽혔다. 요즘 대학생들은 스펙쌓기가 필요하다. 불교 활동을 통해 이러한 스펙도 함께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교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들의 니즈는 어느 정도 파악됐다. 이들의 의견을 통해 일반대학생들의 니즈도 유추가 가능하다.

한국불교는 그동안 사회에 뒤쳐져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대학생들의 새로운 신행문화 구축을 통해 새로운 불교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명상 한류'를 기대한다

명상 대중화를 위해 종교를 넘어 국내 내로라하는 명상가들이 뭉친 한국명상총협회가 본격적인 대중 명상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서울 강남구가 개최하는 '2019 강남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하는 '강남한류 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다. 10월 5일 완연한 가을의 길목에 들어서는 날, 강남구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의 명소 가로수길에서는 참선과 요가명상, 피트니스명상, 선무도명상 등 다양한 명상의 장이 펼쳐진다.

한국명상총협회는 앞서 8월 29~31일 서울 동국대에서 '2019 대한민국 명상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명상수행승 각산 스님을 비롯해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장과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 조효남 서울불교대학원 석좌교수 등이 나와 명상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행사가 어느 정도 명상에 관심 있거나 수행해온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페스티벌은 명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명상이 무엇인지 알리는 자리다.

명상열풍은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 기획설계자인 '킴킴'도 지난 명상포럼 대중강연서 과학기술이 선물한 여분의 시간을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말처럼 조만간 인간은 지금보다 늘어난 여유 시간을 영성의 길에 쓸 것인지, 낭비해 멸망의 길에 쓸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명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면 이번 명상 페스티벌에 가보자. 자신의 미래를 뚜렷하게 설계할 순 없어도 나침반을 볼 정도의 소득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